

## 한국어-스페인어 동시통역에서의 영어 차용 사용 전략 - 경제 장르를 중심으로 - \*

김 미 경  
(한국외대)

### 1. 서론

20세기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스포츠를 위시한 많은 분야에서 영어의 영향이 증대됐다. 현재 영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며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영어는 많은 국가의 일상언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으며 세계와 소통 및 교류에 있어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영어 차용 현상은 영어가 비영어권 국가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다양한 언어권과 전문 장르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가 다양해 같은 영어라도 발음, 문법, 용어 등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이 가운데 스페인어 실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어는 미국식 영어이다. 고메스(Gómez 1997)에 따르면 스페인어 영어 차용에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 (american)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력과 패권이 국제관계에 반영된 결과이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798).

다.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인 CEBR(Center for Economic and Business Research)는 GDP 규모로 미국을 압도적 세계 1위 국가로 꼽았다. 미국은 2019년 세계 GDP의 24.8%를 차지했으며 2033년까지는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CEBR는 전망했다. 미국식 영어는 이미 국제무역 및 경제에서 *lingua franca*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GDP 전망을 고려했을 때 이 역할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스페인어는 역사적으로 지역 정세의 변화에 따라 여러 언어의 영향을 받았으며 20세기에는 영어가 스페인어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조혜진(2012)은 12세기에는 프랑스어가, 황금 세기에는 이탈리아어가, 계몽주의 시대에는 또다시 프랑스어가 크게 스페인어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고트어나 아랍어, 중세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18~19세기 프랑스어, 초기 영어가 모두 스페인어 일부를 구성하게 됐다고 첨언했다. 데 라 크루스, 테헤도르, 디에스 외(de la Cruz, Tejedor, Díez et al 2007)에 따르면 영어가 스페인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기는 르네상스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영어 차용이 큰 규모로 본격화된 것은 최근 60년 남짓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다.

영어 차용 현상은 비단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 전역, 그리고 세계 다양한 언어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국가 간 소통을 위해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통번역 과정에서도 영어 차용의 영향이 확인된다. 통번역사는 영어 차용 현상을 가장 먼저 접하고 적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번역사는 영어 차용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원활한 통번역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수아우(Suau 2010: 3)는 전문 통번역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통번역 대상 주제, 출발 및 도착 언어에 대한 지식 외에도 수년간 누적된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문 통번역사 다루는 장르와 어역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통번역사는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해당 장르 청자나 독자들이 수용 가능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다. 여기에 영어 차용어도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온시스 마르티네스(Oncis-Martínez 2009)에 의하면 번역에서 영어 차용은 많은 경우 진입문 역할로 사용되므로 통번역의 영어 차용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희경(Choi 2021)이 한영 통번역 분야에서 영어 차용 현상이 개별적으로 고찰된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한서 통번역의 영어 차용 현상에 관한 연구, 특히 통역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이는 구어 텍스트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어-스페인어 동시통역(이하 한서 동시통역)에서 발생하는 영어 차용 현상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 장르 영어 차용 현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습자와 통역 실무자들이 통역 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영어 차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데이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In England, I have observed that translator trainees, working either into or out of their mother tongue, often find it difficult to decide when to translate an English word with an established Anglicism in Italian.  
(Laviosa 2006: 268)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문 동시통역사, 동시통역 학습자가 동시통역 상황에서 영어 차용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기자료가 되는 동시에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영어 차용 양상 및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스페인어 동시통역 시 영어 차용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경제 장르 한서 동시통역 상황에서의 영어 차용 현상을 고찰한다. 위 목표 달성을 위해 (1) ST와 TT에 나타난 영어 차용 현상 확인, (2) TT의 영어 차용 현상을 스페인어 참조코퍼스와의 대조, (3) ST, TT 영어 차용 어휘 분석(빈도, Type, Token, TTR)을 이행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영어 차용

영어 차용은 크고 작은 범위에서 영어가 다른 언어에 미치는 직간접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스페인 왕립 학술원(Real Academia Española, 이하 RAE)은 영어 차용(anglicismo)을 첫째, 영어에서의 차용어나 화법, 둘째, 다른 언어에서 사용되는 영어 단어나 차용어, 셋째, 다양한 언어에서 사용되는 영어 단어나 차

용어로 구분한다. 영어 차용이란 효율적 언어사용 전략의 하나로 전문 분야, 혹은 장르에 따라 사용 빈도나 양상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럽에서 영어 차용어의 사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속화됐다. 필라흐(Görlach 2003)는 1945년부터 유럽에서 영어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유럽 16개국 언어에 사용되는 3,800개의 영어 차용어를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영어 차용어 대부분이 과학이나 기술용어와 관련됐고 80% 이상은 명사임이 밝혀졌다. 스페인어의 영어 차용 유형을 언어, 그리고 언어 외적으로 구분하는 학자들이 많다. 스페인어 영어 차용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프라트(Pratt 1980)는 영어 차용을 어휘적(lexical) 그리고 언어외적 영어 차용(extralinguistic anglicism)으로 구분한 바 있다. 필라흐(Görlach)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영어 차용 현상은 문법보다 어휘 차원에서 많이 나타난다. 온시스 마르티네스(2009) 또한 영어 사용이 어휘 차원에서 더 많고 두드러진다고 역설했다. 영어 차용 현상 관련 국내연구는 사회언어학적 접근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어 차용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가 그 가운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김선정 2002; 심민수 2010; 이상직 2011; 초미희 2009) 사회적인 관점을 두고 접근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승희와 천승미 2013; 이정복 2017). 영어 차용 수용도는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를 수용하는 기준에 대해 풀치니(Pulcini 2002)는 이탈리아어나 네덜란드어를 ‘외향적(extroverted)’ 언어로 타 언어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소개하는 한편, 스페인어나 프랑스어에 대해서는 ‘내향적(introverted)’ 언어로 외국어의 영향을 제한하고자 하는 언어라고 설명했다. 풀치니(Pulcini)의 주장대로 RAE는 영어 차용에 대해 제한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 2.2 경제 장르에서의 영어 차용 이론

장르란 특정 목적을 가진 참가자들이 구어 또는 문어로 정형화된 텍스트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다(Bhatia 1993; Swales 1990). 한서 동시통역은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둘, 혹은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한서 동시통역이 주요하게 이루어지는 배경으로 경제 및 무역 협력 관련 회의를 꼽을 수 있다.

경제 장르 영어 차용 연구 또한 타 장르의 영어 차용 연구와 마찬가지로 언어외적, 혹은 통사론적 측면보다 어휘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 피켓(Pickett 1989)은 비즈니스 언어 또는 경제 비즈니스 언어와 같이 업무용 언어를 ‘ergolect’로 정의했는데 그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ergolect’는 어휘적 층위 및 담화적 양상 층위에서 작용하지, 문법적 층위에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제 장르 영어 차용 현상을 볼 때 문법보다는 어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아우(Suau 2010)는 스페인어 경제 장르에 나타나는 영어 차용에 관한 연구에서 형태론적 모상(morphologic calques)이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가 제시한 형태론적 모상의 예시로 swap은 스페인어로 suap, securitization은 securitización을 들 수 있다(Suau 2010: 80). 요피스(Llopis 2006)는 스페인어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되는 영어 차용 중에서도 어휘의 차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timing, bartering, mailing, benchmarking, merchandising, feedback을 들었다. 모상의 예로는 eslogan(slogan), logotipo(logotype), cluster(cluster), esponsor(sponsor), trazabilidad(traceability)를 제시했다. 라비오사(Laviosa 2006)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영어 차용 교수법을 코퍼스에 기반해 제시했으며 데이터 기반 학습법 연구를 통해 교육용 전문 코퍼스의 설계와 구축을 시도한 바 있다. 이처럼 경제 장르에서의 영어 차용 관련 코퍼스 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3 코퍼스와 장르

코퍼스(말뭉치)는 특정 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나 어휘의 사용을 확인하는 도구로 유용하다. 또한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되는 언어 특성을 탐색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정보처리 도구의 개발은 전자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의 양을 늘렸다. 따라서 과거 대비 코퍼스의 활용도가 높아져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Substantial collections of language texts in electronic form have been available to scholars for almost forty years, and they offer a view of language structure that has not been available before. While much of it

confirms and deepens our knowledge of the way language works, there is also a fascinating area of novelty and unexpectedness - ways of making meaning that have not previously been taken serious. Further, in studying corpora we observe a stream of creative energy that is awesome in its wide applicability, its subtlety and its flexibility. (Sinclair 2004: 1)

코퍼스를 활용한 어휘연구는 언어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라워듀(Flowerduew 2015: 112)는 코퍼스 작업을 이행할 때 연구와 교육은 밀접하게 결속돼 있으며 상호 유익하다고 보았다.

General, specialized and learner corpora have had an impact on pedagogy in two main ways: they are used sometimes in the form of direct applications (hands-on for learners and teachers), mainly affecting how to teach, and some other times in the form of indirect applications (hands-on for researchers and materials writers), which provide answers to questions of what to teach and when to teach it. (Römer 2010: 19)

코퍼스는 특정 장르의 고빈도어휘 추출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 교육과정 설계 시 주요 어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고려했을 때 코퍼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야노바 찬투리아와 웹(Siyanova-Chanturia and Webb 2016: 231)이 언어 교수자와 교육과정 설계자들의 임무는 원칙에 따라 어떤 단어를 언제 배워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처럼 교수자와 학습자가 통역 결과물을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코퍼스를 활용해 학습 어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 2.3.1 통번역과 코퍼스

베이커(Baker n.d., Somers 1996: 176에서 재인용)는 번역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 코퍼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시통역 시 ST의 형태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TT가 아니라 ST의 커뮤니케이션 목표 및 맥락을 고려한 TT가 통역의 목표가 된다. 코퍼스를 활용한 TT 분석은

커뮤니케이션 목표 및 맥락이 통역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 코퍼스 기반 장르분석은 수사학적 차원에서 소규모 전문 코퍼스의 유효성을 증명했다(Flowerdew 2004; Koester 2013; López-Arroyo and Roberts 2014). 따라서 소규모 코퍼스라 하더라도 특정 전문 장르의 특징을 확인하는데 유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커(Baker)의 설명대로 번역학 연구자들이 최종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단어나 통사구조가 아니라 명료화(explicitation)나 간소화(simplification)와 같이 개별 언어와는 별개로 추상적이고 전반적인 관념으로 다양하게 발현되는 현상이다.

### 2.3.2 스페인어 코퍼스

다른 언어의 경우처럼 과거 스페인어도 자료의 부족으로 영어 차용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탈리아어에서 스페인어로 통·번역한 텍스트의 영어 차용 현상을 코퍼스에 기반해 자네티(Zanettin 2001)가 연구한 사례가 있다. 특정 목적을 위한 ST와 병렬 TT를 구축해 영어 차용 현상을 상향식(bottom-up) 접근법으로 고찰해 ST와 TT에 나타난 영어 차용 현상을 비교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렌소(Lorenzo 1996)는 과거 스페인어 영어 차용 연구를 이행할 때 신뢰 가능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 전자자료 확보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스페인어 코퍼스가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ACTRES(Contrastive Analysis and Translation English-Spanish의 스페인어 약자) 2.0은 레온(León) 대학을 중심으로 여러 스페인 대학 및 기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ACTRES 프로젝트는 영어와 스페인어 각각의 단일 언어(monolingual) 코퍼스를 비롯해 양방향 병렬 코퍼스<sup>1)</sup> 구축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Sanjurjo-González 2019) 6백만 단어 이상이 등록돼 있다. ACTRES의 단일 언어 코퍼스는 번역어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구축됐고 영어-스페인어 병렬 코퍼스는 비교연구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병렬 코퍼스는 판매계약서, 법률, 와인, 음식, 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분석에 활용됐다.

1) 스페인의 경제경쟁력부(Ministry of Economy and Competitiveness)의 자금으로 개발.

ACTRES 외에도 다양한 스페인어 코퍼스 개발이 시도됐다. 귄터(Günther 2005)는 중남미와 스페인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의 영어 차용 현상을 비교 연구했는데 Nuevo Diccionario de Colombianismos(콜롬비아 방언 새 사전), 쿠바 스페인어-스페인 스페인어 사전(Diccionario del Español de Cuba-Español de España)과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스페인 스페인어 사전(Diccionario del Español de Argentina-Español de España)을 코퍼스로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스페인어 코퍼스 중 RAE에서 구축한 코퍼스가 가장 중심이 된다. RAE는 전 세계 스페인어 사용국 자료를 집대성해 코퍼스를 구축했는데 이것이 스페인어 참조 코퍼스(reference corpus)가 됐다. 1996년 RAE는 Corpus de Referencia del Español Actual(CREA, 현대 스페인어 참조 코퍼스)을 구축함에 따라 스페인어에서의 영어 차용 현상 연구가 보다 쉬워졌다(Oncis-Martínez n.d., Furiassi 2012: 219에서 재인용). RAE의 코퍼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대해져 대표성을 갖게 됐다. CREA는 1975~2004년 사이에 만들어진 현대 자료로 구성돼 있으며 2021년 3월 최신 버전이 공개됐다. 저서나 언론매체 자료로 이루어진 문어 텍스트 외에도 전체 코퍼스의 10% 비율로 구어 텍스트도 포함돼 있다. CREA는 대략 1억 6천만 단어로 구성돼 있어 여러 스페인어 코퍼스 가운데 대표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RAE는 CREA 외에도 CORPES, CDH, CORDE 코퍼스를 구축했다. 이 중 CDH는 스페인어 역사 코퍼스, CORDE는 1974년까지 스페인어가 사용된 시기가 있었던 지역의 텍스트를 담은 코퍼스이다. CORPES는 CREA와 함께 참조 코퍼스로 RAE에서 소개되는데 21세기 스페인, 아메리카, 필리핀, 적도기니에서 사용된 문어 및 구어 텍스트로 이루어졌다. 스페인어 코퍼스에 대한 발전과 영어 차용 현상에 대한 설명은 로호(Rojo 2016)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로호는 RAE의 참조 코퍼스가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참조 코퍼스인 CREA와 CORPES 중 후자가 연구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연구에 활용했다. 영어 차용어 일부를 시범적으로 코퍼스에 입력한 결과 CREA보다 CORPES에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2)</sup>.

2) ST에 코빈도순으로 나타난 세 개 영어 차용 어휘를 CORPES에 입력한 결과 'project', 'graph', 'channel'이 각각 830회, 30회, 399회 등장했다. 반면 CREA에는 각각 12회, 2회, 17회 등장했다.



CORPES 0.94는 2021년 7월에 RAE에 의해 공개된 최신 버전으로 총 327,000건의 문어, 그리고 전사 작업으로 만들어진 구어 문서로 이루어졌으며 총 3억 5천만 개 철자(formas ortográficas)로 구성됐다.

### 3. 분석방법

한서 동시통역에서 나타나는 영어 차용 현상 고찰을 위해 첫째, 한국어와 스페인어에서의 영어 차용 연구를 위한 코퍼스를 구축한다. 둘째, 코퍼스를 활용하여 영어 차용 빈도를 도출한다. 셋째, 영어 차용어 추출 결과에서 특정 패턴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문용어 번역연구와 영어 차용 연구에서 어휘가 주요 연구 대상이다. 따라서 ST와 TT를 소규모 코퍼스로 구축해 영어 차용 어휘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 3.1. 자료수집

##### 3.1.1 ST

ST는 실제 경제 장르 한서 동시통역이 이루어지는 배경에서 추출한다. 한국과 중남미, 또는 스페인과의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로 한정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요 국제회의가 온라인과 현장 참여가 동시에 가능한 혼합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확보가 가능한 발표문을 선정해 전사한다.

라비오사(Laviosa 2007)는 비즈니스 장르의 분석대상 텍스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세 가지 텍스트 유형을 소개했는데 3) 첫째는 전문가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술한 학술논문, 저술, 전공논문, 둘째는 전문가가 비전문가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술한 텍스트를 사례로 들었다. 셋째는 전문가가 초보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글로 금융기관이 발간한 정보적 자료, 즉 전문잡지나 뉴스 기사 텍스트이다.

본 연구는 라비오사(Laviosa)의 텍스트 유형 중 첫째에 해당하는 한국 경제

3) 고티(Gotti 2003)와 피어슨(Pearson 1998)이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소개함.

전문가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술한 연구보고서를 구어로 발표한 텍스트를 ST로 정한다. ST 선정 후 해당 ST의 동시통역 수행 및 통역 결과물인 학습자들의 TT 녹음을 전사해 전자 문서화한다. 음성자료의 전자문서화 정확도를 위해 워드(Word) 프로그램의 받아쓰기 기능으로 1차 자료화 작업을 거친 후 2차 점검 과정을 통해 문서의 완성도를 높인다.

위 기준에 따라 제24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루어진 발제 중 하나를 ST로 선정해 워드 프로그램에 문서화 했다. 국제회의 특성상 기초연설이 아닌 일반발표는 주로 각각 15분에서 30분가량의 시간이 할당되는데 분석대상 ST는 29분 분량으로 총 2,869개의 Token으로 이루어졌다. 전사자료는 txt 파일로 변환, 저장됐다.

### 3.1.2 TT

ST 영상을 유튜브로 재생해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서과 2학년 학습자 10명이 실시간 동시통역했다. 동시통역 이행 하루 전 영상 자료를 사전에 검색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 ST 발표자료(PowerPoint)를 학습자들에게 공유해 실제 동시통역자들이 통역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발표 주제와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했다. TT 녹음 직후 바로 연구자의 메일로 발송하도록 했으며 녹음자료의 1차 전사 작업 후 추가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내용의 정확도를 높였다. 위 작업은 철자 및 받아쓰기 기능 활용을 위해 워드 프로그램으로 이행한 다음 해당 파일을 분석용 틀에 적용할 txt 파일로 변환해 총 10건의 TT 파일을 구축했다.

## 3.2 분석방법

워드스미스(WordSmith)를 활용해 ST와 TT의 Token(총 어휘의 수)과 Type(다른 어휘의 수), 영어 차용 Token, TTR(어휘다양도)을 추출해 비교·분석한다. ST에 사용된 영어 차용 어휘 목록 작성 후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에 개별 입력해 해당 용어가 국립국어원에 영어 차용 어휘로 분류돼 있는지 확인한다. TT 영어 차용 어휘별 사용 빈도를 표로 따로 정리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ST와 TT에서 나타나는 영어 차용 사용 양상과 특이점을 확인, 분석한다.

#### 4. 분석 결과

ST의 Type은 1,279, Token은 2,869이며 어휘다양도를 나타내는 TTR은 44.58이다. TT 평균 Type은 495.4이며 Token은 1,994로 TTR은 25.07로 나타났다. TTR이 높을수록 어휘다양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표 1〉 ST와 TT(평균)의 영어 차용 Type, Token, TTR

	ST	TT(평균)
영어 차용 Token	99	0.3
Type	1,279	495.4
Token	2,869	1,994
TTR	44.58	25.07

〈표 1〉에서 영어 차용 Token은 엑셀(Excel) 표에 정리해 센 횟수이고 Type, Token, TTR은 워드스미스로 도출한 결과이다. TTR 중 TT(평균)의 결괏값은 표에 제시된 값으로만 산출했을 때 나오는 24.84가 아닌 소수점을 모두 반영해 계산한 워드스미스 결괏값으로 제시됐다. 〈표 1〉의 영어 차용 Token 결과를 보면 ST는 99인 반면 TT는 0.3으로 대비가 극명했다. ST에서 영어 차용이 대조적으로 많았다. ST의 영어 차용을 보면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한 영어 차용 용어 외에도 ‘soybean’이나 ‘stance’와 같이 한국어로 ‘대두’, ‘입장, 태도’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그대로 차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첫 번째 이유로 해당 장르 구어 텍스트의 특징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로 한국 연구원 중 영어사용국에서 학위를 이수한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ST 연사가 소속된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사가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장르에 대한 지식을 영어로 습득한 경험이 ST 영어 차용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장르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전문 장르의 경우 영어 차용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경제 장르도 전문 장르이므로 그 특성상 영어 차용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ST에서 영어 차용 빈도 대비 TT에서의 영어 차용은 매우 적었다. 그 원인을 고려해보면 첫째, TT와 영어에 등장한 영어 차용 어휘 대부분이 라틴 어원

인 것을 들 수 있다. 영어의 ‘context’와 ‘monitoring’은 스페인어로 ‘contexto’, ‘monitoreo’인데 위 어휘들은 양 언어에서 같은 라틴 어근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AE도 두 단어를 영어 차용어로 분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sup>4)</sup>. 동일한 라틴 어근을 공유하는 영어와 TT인 스페인어 경제 장르 어휘의 경우 스페인어에서는 영어 차용으로 구분하지 않아 그 수가 대조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둘째, 동시통역 전략에 기인한 것을 들 수 있다. 동시통역은 ST를 TT로 거의 동시에 전환하는 과정인데 ST 발화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여러 전략이 활용된다. ST에서 확인된 영어 차용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T 전략으로는 (1) 반복 생략, (2) ST 간소화, (3) 누락이 확인됐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반복 생략

ST: 바 그래프 이 막대그래프가 수출에 대한 통계치구요...

TT: Las barritas son los datos de exportaciones. (바들은 수출 데이터입니다...)

반복 생략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을 생략했음을 의미한다. ‘바(bar)’는 한국어로 ‘막대’인데 ‘바 그래프’, ‘막대그래프’로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됐다. 이에 대해 TT는 ‘Las barritas(바들은)’로 반복을 생략했다.

#### (2) 간소화

ST: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은 이 이 파란 색깔의 루트가 중국 정부가 제안한 해저광케이블 루트고 붉은색이 일본 측에서 그 제안한 루트인데...

TT: Como muestra esta lámina, la ruta roja fue propuesta por Japón y la azul, por China. (이 장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붉은색 루트는 일본이 제안하고 파란색은 중국이 제안했습니다)

간소화는 반복된 표현을 하나로 생략하는 반복 생략 전략과는 달리 긴 설

4) RAE에서 영어 차용어로 분류하는 경우 ‘Voz inglesa’로 구분.

명을 간략화해 발화하는 것이다. S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은’을 TT는 ‘Como muestra esta lámina(이 장표에서 보는 것처럼)’로 간소화했다. 이어 발화된 ‘이 파란 색깔의 루트가 중국 정부가 제안한 해저광케이블 루트고 붉은색이 일본 측에서 그 제안한 루트인데’는 ‘la ruta roja fue propuesta por Japón y la azul, por China(붉은색 루트는 일본이 제안하고 파란색은 중국이 제안했습니다)’로 간소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간소화가 가능한 이유는 사전에 해저광케이블이라는 내용이 언급됐으므로 이를 맥락화 해 의미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누락

ST: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plus 또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TT: (X)

위 ST는 10개의 TT에서 모두 누락됐다. 정보처리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일부를 누락시키는 전략으로 보인다. ST 내용을 살펴보면 발표의 핵심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누락을 선택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TT 발화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인의 명확한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TT의 Type, Token, TTR

	Text file	Type	Token	TTR
1	TT1	605	2,644	22.88
2	TT2	418	1,679	24.90
3	TT3	517	2,370	21.81
4	TT4	440	1,654	26.60
5	TT5	460	1,773	25.94
6	TT6	496	1,771	28.01
7	TT7	532	1,932	27.54
8	TT8	482	1,872	25.75
9	TT9	494	2,098	23.55
10	TT10	510	2,147	23.75
	평균	495.4	1,994	25.07

<표 2>에서 워드스미스를 이용해 도출한 결과 중 Type, Token(used for wordlist), TTR 결괏값을 소수점 2개까지 표시했다. <표 2>에 제시한 평균값은 전체 소수점이 반영된 워드스미스 통계분석 결괏값이다. 표 내용을 살펴보면 TT 10개의 평균 Token은 1,994이며 평균 Type은 495.4이다. 가장 높은 Token은 2,644이며 가장 낮은 Token은 1,654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Type은 605, 가장 낮은 Type은 418로 나타났다. TTR 평균은 25.07이며 최대 28.01과 최저 21.81로 확인된다. TT 사이에 나타난 차이는 통역 역량, 전략, 혹은 통역 발화 습관에 의한 영향으로 유추된다.

<표 3> ST 영어 차용 어휘(빈도순)

	영어 차용 어휘	빈도
1	project	13
2	graph	11
3	channel	10
4	data	7
5	cable	7
6	table	5
7	5G	4
8	route	4
9	percent	3
10	minus	3
11	pattern	3
12	HS code	2
13	stance	2
14	total	2
15	Latin America	2
16	monitoring	2
17	bar	2
18	issue	2
19	infra	2
20	action	1
21	announce	1
22	belt road initiative	1
23	BRICS	1
24	broad	1
25	China	1
26	clear	1

27	context	1
28	FTA	1
29	impact	1
30	plus	1
31	research question	1
32	schedule	1
33	slide	1
34	soybean	1
35	summarize	1
36	UN Comtrade	1
37	doctrine	1
38	America	1
39	Corona 19	1
40	field	1

ST에서 총 40개의 영어 차용어가 서로 다른 빈도로 총 107회 확인됐다. 고빈도순으로 ‘project,’ ‘graph,’ ‘channel,’ ‘data,’ ‘cable,’ ‘table,’ ‘5G,’ ‘route,’ ‘percent,’ ‘minus’가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표에 제시된 영어 차용 어휘 대부분은 국립국어원에 영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확인됐으나 ‘summarize’는 국립국어원에 등록되지 않은, 즉 현재 고착화된 형태로 통용되는 영어 차용 관습과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summarize’는 한국어로 ‘요약하다’라는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연사의 영어사용국에서의 교육 배경이나 경제 장르 구어 텍스트의 관습에 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정확한 원인은 후속 연구를 통해 연사의 영어사용국에서의 교육이 연사의 영어 차용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장르 구어 텍스트의 관습을 살펴봄으로써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유명사의 경우 국립국어원은 그 유래를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국립국어원에 외래어로 등록이 되었으나 그 유래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틴아메리카’는 Oxford English Dictionary(OED)에 등록돼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영어 차용어로 분류했다. ‘5G’의 경우 국립국어원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OED에는 검색돼 영어 차용어로 분류했다.

〈표 4〉 TT 영어 차용 어휘(빈도순)

	영어 차용 어휘	빈도
1	5G	13
2	HS	6
3	One Road	1
4	BRI	1
5	COV19	1

10개의 TT에서는 5개의 영어 차용어가 총 22회 확인됐다. TT 평균 2.2회이다. ‘5G’는 13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가 6회로 가장 많았다. 세 번째로 ST의 ‘belt road initiative’를 ‘proyecto One Road’, 그리고 ‘iniciativa BRI’로 통역한 사례가 확인됐다. 스페인어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la iniciativa Belt and Road’, ‘la Franja y la Ruta, el proyecto de la Franja Económica de la Ruta de la Seda’, ‘la Belt and Road Initiative(BRI por su sigla en inglés)’, ‘la Nueva Ruta de la Seda’로 사용된다. 스페인어로도 영어 차용 현상이 두드러지는 용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경우 주로 영어원문과 함께 제시된다. 실제 스페인어권에서 위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고려했을 때 TT에서는 스페인어권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르게 간소화된 형태로 언급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동시통역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추할 수 있다. TT의 영어 차용 어휘에서 ‘코로나19’를 스페인어권에서 ‘coronavirus’, ‘COVID-19’<sup>5)</sup>로 사용하는 대신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COV19’로 통역한 사례를 또한 확인할 수 있다. TT에서 영어 차용 현상을 보면 새로운 기술, 국제 상품분류 기준, 외국(중국)의 정책에 한정해 사용됐다. 따라서 ST 대비 TT는 보수적으로 영어를 차용해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ST와 TT 간 영어 차용 어휘 빈도에 차가 나는 이유는 영어와 스페인어는 라틴 어근 어휘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어는 라틴 어근이 아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ST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의 특징을 CORPE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RPES에서 특정 용어의 사용 빈도와 사용국가 및 사용된 장르를 확인할

5) 스페인 왕립 학술원은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스페인어 명칭을 2020년 3월 19일 ‘coronavirus’와 ‘COVID-19’로 확인한 바 있다.



수 있는데 ST에서 영어 차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project’를 입력한 결과 ‘project’는 591개 문서에서 총 830회 사용됐다. CORPES에서 제시한 백만 단 어당 나타난 빈도를 나타내는 정규화 빈도가 2.39로 확인됐다. 사용 빈도별 국가는 스페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미국, 베네수엘라, 페루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별 ‘project’ 어휘 사용을 순위로 보면 과학기술, 예술문화공연, 정치경제법률에 집중돼 있다.

〈표 5〉 주제별 ‘project’ 사용 빈도 및 정규화 빈도

주제	빈도	정규화 빈도
1. 과학기술	303	8.50
2. 예술·문화·공연	244	7.11
3. 정치·경제·법률	104	1.58

주제별 ‘project’ 사용 빈도는 과학기술과 예술·문화·공연에서 가장 높았다. 정규화 빈도에서도 주제 1과 2 대비 3에서 큰 격차가 나타난다.

〈그림 1〉 CORPES 검색 결과 ‘project’ 사용사례

The screenshot shows the CORPES search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ConCORDANCIA, Copariciones, Configuración, Ayuda, Estadística, Modo de cita, Sugerencias, and Preguntas frecuentes. Below these is a search bar with 'project' entered. The search results are displayed in a table with columns: REF., Clasificación, país, and CONCORDANCIA. The results list various instances of 'project' used in different contexts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dates.

〈그림 1〉을 통해 스페인어에서 ‘project’의 영어 차용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고유명사화됐을 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 제시된 예시 중 ‘Project Veritas’, ‘Project Power’, ‘World Justice Project’의 사례도 이 경유이

다. CORPES 검색 결과에 ‘project financing’의 형태로도 자주 등장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용어의 스페인어 설명이 병렬 표기되어 ‘project’의 영어 차용이 스페인어권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된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스페인어는 라틴 어원을 주요하게 사용하므로 ‘project’의 스페인어 대응어인 ‘proyecto’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CORPES에서 스페인어로 ‘proyecto’를 검색한 결과 총 47,977건의 문서에서 135,703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TT에서도 목표언어 관습에 맞게 ST 영어 차용을 ‘proyecto’로 통역한 것이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graph’의 경우에도 라틴어 graphicus에서 파생된 용어로 스페인어 ‘gráfico’가 있다. CREA 코퍼스에서 ‘graph’를 검색한 결과 17개의 문서에서 총 30회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도 고유명사로 ‘graph’가 사용될 때 영어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예로 컴퓨터 도구의 명칭인 ‘Graph Search’, ‘Open Graph’가 있다. 검색 결과 ‘gráfico’는 총 5,963건의 문서에서 15,752회 사용돼 스페인어에서는 ‘gráfico’를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빈도가 높은 ‘channel’도 같은 경우인데 아래 표에 정리된 수치를 통해 해당 용어들을 영어 차용 형태가 아닌 스페인어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을 볼 수 있다.

〈표 6〉 CORPES에 나타난 영어 차용 어휘 상위 3개의 사용빈도와 대응 스페인어의 사용빈도

	영어 차용어		스페인어 대응어	
	문서	빈도	문서	빈도
project	597	830	47,977	135,703
graph	17	30	5,963	15,752
channel	310	399	13,140	28,879
평균	308	420	22,360	60,111

ST에서 가장 영어 차용이 많이 된 상위 3개 어휘는 ‘project’, ‘graph’, ‘channel’이다. 스페인어는 대응되는 ‘proyecto’, ‘gráfico’, ‘canal’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표 6>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TT에서의 영어 차용 현상이 ST 대비 적은 것은 동시통역 전략과 스페인어에서의 영어 차용어 사용 관습에 따른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서 동시통역 상황에서 구어 경제 장르인 ST에서의 영어 차용 어휘 사용 양상과 통역 결과물인 TT에서의 영어 차용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 보고 양 텍스트의 차이를 분석했다.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유튜브를 통해 현장에서 발화된 ST 확보가 가능했는데, 10명의 한서 동시통역 학습자들이 ST를 영상으로 시청하며 ST 발화와 거의 동시에 TT를 발화, 녹음해 코퍼스를 구축해 분석에 활용했다. ST와 TT 영어 차용 양상을 고찰한 결과 ST에 영어 차용 어휘 40개가 서로 다른 빈도로 총 107회 나타났다. 반면 10개의 TT에서는 영어 차용 어휘는 단 22회, 즉 TT 평균으로는 2.2회만 확인됐다. 경제 장르의 구어 텍스트적 특성, 통역전략 사용, 언어 간 차이, 발화자의 경제 장르 학습 배경이 주요인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발화자 한 명의 사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추후 여러 연구를 통해 발화자의 학습 배경이 영어 차용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역학습자들은 ST 반복 생략, 간소화, 누락 전략을 사용해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 확인됐다. 10개의 TT 간 TTR은 최대 28.01, 최저 21.81로 나타났다. TT 간에 나타난 차이는 각 학습자의 통역 역량 혹은 통역 발화 습관에 의한 영향으로 유추된다. 위 전략이 영어 차용 빈도 차이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ST와 TT 간 영어 차용어 사용 차이의 요인으로는 영어와 스페인어는 라틴 어근 어휘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반면 한국어는 라틴 어근이 아닌 것을 들 수 있다. 스페인어에서 ST의 영어 차용어를 현지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고유명사화된 사례임을 스페인어 코퍼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서 동시통역 학습자들에게 경제 장르 통역 시 영어 차용 현상에 대한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영어 차용에 관한 연구를 다른 장르에도 적용한다면 통역 교수자의 개별경험에 의한 도제식 교육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영어 차용 현상은 21세기 이후 특히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연결하는 통번역 상황에도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어

차용 현상이 장르별, 언어 조합별, 번역, 순차통역 및 동시통역 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통번역에서의 언어 차용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통역전략을 세우는 토대가 돼 영어 차용 현상이 발생했을 때 더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토대가 되는 동시에 학습자의 교수자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 주도적 학습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승희, 천승미 (2013) 「한국과 폴란드 젊은 세대의 영어 차용 현상」, 『동유럽 발칸연구』 36: 3-35.
- 김선정 (2022) 「영어 차용어의 음운 조정 현상에 나타난 보편성과 특수성」, 『언어와 문화』 18(2): 57-79.
- 심민수 (2010) 「한국어와 영어차용어의 비음화 및 유음화 연구」, 『현대영미어문학』 28(1): 215.
- 이상직 (2011) 「영어 차용어에서 나타난 어중 자음 연쇄의 [i] 존재에 대한 지배음운론적 접근」, 『언어연구』 27(3): 487-504.
- 이정복 (2017) 「트위터 누리꾼들의 영어 차용 복합어 새말 사용 및 관련 태도 분석」, 『영어학』 17(4): 753-786.
- 초미희 (2009) 「국어학, 한국어교육: 한국어에서 영어 차용어의 음운적 접근」, 『우리어문연구』 35: 277.
- Bhatia, Vijay (1993) *Analysing Genre: Language Use in Professional Settings*, London: Routledge.
- Choi, Heekyung (2021) ‘Anglicisms in Korean: A Diachronic Corpus-based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Translation as a Mode of Language Contact’, *Journal of Language and Linguistic Studies* 17(1): 115-138.
- De la Cruz-Cabanillas, Isabel, Cristina Tejedor-Martínez, Mercedes Díez-Prados and Esperanza Cerdá-Redondo (2007) ‘English Loanwords in Spanish Computer Language’,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6(1): 52-78.

- Furiassi, Cristiano, Félix Rodríguez-González and Virginia Pulcini (2012) *The Anglicization of European Lexis*, Amsterdam: John Benjamins.
- Gómez-Capuz, Juan (1997) 'Towards a Typological Classification of Linguistic Borrowing (Illustrated with Anglicisms in Romance Languages)', *Revista Alicantina de Estudios Ingleses* 10: 81-94.
- Görlach, Manfred (2002) *English in Europe*, Oxford: Oxford UP.
- Görlach, Manfred (2003) *English Words Abroad*, Amsterdam: John Benjamins.
- Gotti, Maurizio (2003) *Specialized Discourse: Linguistic Features and Changing Conventions*, Bern: Peter Lang.
- Laviosa, Sara (2006) 'Data-driven Learning for Translating Anglicisms in Business Communication', *IEEE Transactions on Professional Communication* 49(3): 267-274.
- Laviosa, Sara (2007) 'Studying Anglicisms with Comparable and Parallel Corpora', *Belgian Journal of Linguistics* 21(1): 123-136.
- Oncins-Martínez, José (2009) 'Towards a Corpus-based Analysis of Anglicisms in Spanish: A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Studies* 9(3): 115-132.
- Llopis, María Ángeles Orts (2006) 'Exportar en España: la influencia del inglés en el discurso contractual en español' [스페인 수출: 영어가 스페인어 계약 담화에 미치는 영향], in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AELFE Conference, Universidad de Zaragoza, 2006*, 556-561. Zaragoza: Prensas Universitarias de Zaragoza.
- Lorenzo, Emilio (1996) *Anglicismos hispánicos* [스페인어의 영어 차용], Madrid: Gredos.
- Pearson, Jennifer (1998) *Terms in Context*, Amsterdam: John Benjamins.
- Pickett, Douglas (1989) 'The Sleeping Giant: Investigations in Business English', *Language International* 1(1): 5-11.
- Pratt, Chris (1980) *El anglicismo en el español peninsular contemporáneo* [현대 스페인 스페인어의 영어 차용어], vol. 308, Madrid: Gredos.
- Pulcini, Virginia (2002) 'Italian', in Manfred Görlach (ed.) *English in Europe*,

- Oxford: Oxford UP, 151-167.
- Rojo, Guillermo (2016) ‘Corpus textuales del español’ [스페인어 텍스트 코퍼스], in Javier Gutiérrez-Rexach (ed.) *Enciclopedia de lingüística hispánica* [스페인 어학 백과사전], (vol. 2), London: Routledge, 515-526.
- Römer, Ute (2010) ‘Using General and Specialized Corpora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Past, Present and Future’, in Mari Carmen Campoy, Begoña Bellés-Fortuño, María Lluïsa Gea-Valor (eds) *Corpus-Based Approaches to English Language Teaching*, London: Continuum, 18-35.
- Sanjurjo-González, Hugo and Marlén Izquierdo (2019) ‘P-ACTRES 2.0: A Parallel Corpus for Cross-linguistic Research in Parallel Corpora for Contrastive and Translation Studies’, in Irene Doval and M. Teresa Sánchez-Nieto (eds) *New Resources and Applications*, Amsterdam: John Benjamins, 215-231.
- Sinclair, John McH. (2004) *How to Use Corpora in Language Teaching*, Amsterdam: John Benjamins.
- Siyanova-Chanturia, Anna and Stuart Webb (2016) ‘Teaching Vocabulary in the EFL Context’, in Willy Renandya and Handoyo Puji Widodo (eds) *English Language Teaching Today: Linking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 227-239. [https://doi.org/10.1007/978-3-319-38834-2\\_16](https://doi.org/10.1007/978-3-319-38834-2_16)
- Somers, Harold (1996) *Terminology, LSP and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Suau, Francisca (2010) *La traducción especializada: en inglés y español en géneros de economía y empresa* [전문번역: 경제 및 비즈니스 장르의 영어와 스페인어], Valencia: Arco Libros.
- Swales, John (1990) *Genre Analysis: English in Academic and Research Settings*, Cambridge: Cambridge UP.
- Zanettin, Frederico (2001) ‘Swimming in Words: Corpora, Translation and Language Learning’, in Guy Aston (ed.) *Learning with Corpora*, Houston: Athelstan, 1001-1021.

<인터넷 자료>

스페인 왕립 학술원 <https://www.rae.es>

통계청국민총소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901\\_OECD&vw\\_cd=MT\\_RTITLE&list\\_id=UTIT\\_OECD\\_L&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R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901_OECD&vw_cd=MT_RTITLE&list_id=UTIT_OECD_L&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R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2022년 8월 18일 검색.

CEBR (Center for Economic and Business Research), <https://cebr.com/reports/world-economic-league-table-2020>, 2022년 8월 18일 검색.

ACTRES (Contrastive Analysis and Translation English-Spanish) <https://actres.unileon.es/wp/description>, 2022년 3월 15일 검색.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latin-america?q=Latin+America>.

[Abstract]

### **Anglicisms in the Genre of Economics and Business in Korean-Span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Mikyung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anglicism was markedly formed in the fields of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studies among others. The United States, where English is used as the mother tongue, is the world's leading economy in terms of GDP volume, and prospects indicate that the US will maintain this position for several more decades. Because of this, world commerce and economy are greatly influenced by English.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only a handful of studies on anglicism in the genre of economics and commerce. This study focuses on the anglicisms found in texts of economic genre for Korean-Span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Kr-Sp SI), thus creating a base material for the practice and learning of anglicisms in Kr-Sp SI. To meet the research goal of building the aforementioned material, the following three tasks were performed: (1) screening of anglicisms in ST and TT, (2) comparison of anglicisms in ST and TT with the reference corpora of each language pair, and (3) linguistic analysis of ST and TT (Type, Token, TTR). Results indicated marked differences in the anglicism Tokens and Types between ST and TT, showing that Spanish has a more conservative stance regarding anglicisms compared to Korean. The reasons that anglicisms were more infrequently used in TT were: the strategies of SI,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al text, the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and the educational background in the genre of economy of the ST speaker.



Keywords: Anglicism, genre analysis, simultaneous interpreting, corpus, TTR

주제어: 영어차용, 장르분석, 동시통역, 코퍼스, 어휘다양도

김미경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서과 특임교수

kimpark11@gmail.com

관심분야: 장르분석, 동시통역, 코퍼스

논문 투고: 2022년 9월 4일

1차 심사 완료: 2022년 9월 27일

2차 심사 완료: 2022년 10월 11일

게재 확정: 2022년 10월 21일